



선발 윤석민 6.20이닝 6K 무실점



중간 로드리게스 10이닝 1K 무실점



마무리 한기주 1.10이닝 2K 무실점

모처럼 KIA 마운드 트리오 완봉투

'곰 사냥꾼' 윤석민(21·KIA)이 위기에 빠진 KIA호를 구해냈다.

윤석민은 현충일인 6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20이닝동안 삼진 6개를 잡아내며 피안타 7개와 볼넷 3개로 무실점 호투해 2-0 완승을 이끌었다.

윤석민은 이로써 시즌 4승(7패)째를 챙겼고, KIA는 4연패의 끔찍한 악몽에서 탈출했다.

1회 1사 후 연속 2안타를 얻어맞고 위기에 몰린 윤석민은 나머지 타자들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첫 실점 위기를 넘겼다. 3회에도 무사 1, 3루로 몰린 윤석민은 상대 고영민의 번트 실패때 두 타자를 더블 아웃으로 잡아내며 실점없이 이닝을 마감했다. 윤석민은 이후 4회와 6회를 삼자범퇴로 돌려세운 뒤 7회 2사 만루 때 신임용병 로드리게스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로드리게스는 두산 고영민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윤석민의 무실점 호투를



호랑이, 곰 잡고 4연패 탈출

윤석민 두산전 33이닝 무실점

도왔고, 10이닝동안 1탈삼진 1볼넷으로 잘 던졌다. 마무리 한기주는 1.10이닝을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12세이브(2패)를 챙겼다.

두산만 만나면 괴력을 뽐내는 윤석민은 두산 타자들에게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윤석민은 올 시즌 들어 4월 22일 광주 두산전서 9이닝 동안 안타 3개와 사사구 2개만 내주고 프로 데뷔 첫 완봉승을 따냈고, 지난날 19일엔 잠실 두산전서 7.2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으며 안타 4개와 볼넷 3개로 6-0 완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6월 21일 광주 두산전서 2.2이닝 무실점으로 시동을 건 윤석민은 두산전서 모두 33이닝을 던져 단 1점도

내주지 않는 '잔물투구'를 펼치고 있는 것.

윤석민은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두산과 맞붙으면 그냥 편한 마음이 든다. 집중력이 높아진다"면서 "슬라이더 위주로 던졌는데 다행히 제구가 잘 된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침체의 늪에 빠진 KIA타선도 이날은 힘을 냈다.

4회 홍세완의 좌익선상을 타고 흐르는 2루타로 득점 기회를 잡은 KIA는 송산의 보내기 번트와 손지환의 1타점 2루타를 묶어 선취점을 뽑아냈다.

1-0으로 불안한 리드를 지켜가던 KIA는 7회 선두타자 김상훈의 좌전안타와 이용규의 볼넷, 이현곤의 내야안타로 만 2사 만루서 4번타자 장성호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추가,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그러나 KIA타선은 이날 무려 10안타, 5볼넷을 터트리기도 2득점에 그치는 등 집중력 부족은 여전했다. 한편 7일 광주구장에서 계속되는 KIA-두산전에선 KIA 선발로 제이슨 스코비와 두산은 김승희가 예고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6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KIA전 7회말 무사 1루에서 KIA 이중범 타석때 1루 주자 김상훈이 2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한국 '노장의 힘'...일본 꺾고 4연승

한국여자농구가 베테랑들을 앞세워 아시아 정상 탈환을 위한 한 고비를 넘겼다. 한국은 6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선수권대회 1부 리그 예선 4차전에서 최고참 정선민(20점·6리바운드)이 공격의 선봉에 서고 변연하(17점·6리바운드), 박정은(12점)의 3점포로 기선을 제압하며 난적 일본을

90-68로 완파했다. 김계령도 10득점에 리바운드 7개를 잡아내며 골밑을 든든히 지켜 승리에 힘을 보탤다. 전날 경기에서 이미 4강전 진출을 확정지은 한국은 4연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 7일 중국과 마지막 예선 경기를 남겨놓았다. 또한 작년 도하아시아게임 3-4위전에서 패배 메달을 건지지 못했던 수도도 되

정선민·변연하 37득점 합작 아시아농구선수권 1부리그

갔다. 일본은 3연승 뒤 1패를 당했다. 노장들이 위력을 발휘한 한판이었다. 박정은을 포인트 가드로 내세운 한국은 전반에만 변연하와 박정은이 3점수 2개를 꽂아 넣었고 정선민과 김계령이 더블팀으로 일본의 센터 야마다 구미코(8점·2리바운드)를 무력화시키며 39-29로 앞서 나갔다. 3쿼터 6분20초를 남기고 박정은이 부상

으로 잠시 벤치를 지킨 사이 한국은 일본의 수와 히로미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 43-33으로 쫓기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하은주가 나섰다. 하은주는 중거리슛 2개와 추가 자유투 1개를 잇따라 터뜨렸고 진미정이 3점슛을 꽂아 넣어 3쿼터 3분54초를남기고 51-35까지 달아났다.

4쿼터 종료 5분5초전 변연하의 자유투 2개가 모두 림을 통과하면서 77-58까지 점수를 벌인 한국은 김은혜, 신정자, 김세룡, 김정은 등 젊은 선수들을 투입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베어백이 짚한 '젊은피'는 누구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에 강민수·이근호 등 유력

"베어백 감독의 마음을 훔쳐라"

필름 베어백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올림픽대표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젊은 피를 2007 아시안컵 축구대회 최종엔트리에 포함시키겠다. 뜻을 밝힌 가운데 과연 어떤 선수들이 '베어백의 마음'에 자리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어백 감독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전을 하루 앞둔 5일 인터뷰 자리에서 "가능하다면 올림픽대표팀에서 몇 명을 뽑아 아시안컵에 데리고 가겠다. 국제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다"며 선수들의 경쟁심을 자극했다.

베어백 감독은 16일까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아시안컵 본선에 나설 23명의 최종엔트리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베어백 감독은 네덜란드와 평가전은 물론 올림픽대표팀 훈련을 진행하면서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 16일까지 자기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선수들을 독려했다.

베어백 감독은 지난 2일 네덜란드 평가전을 아시안컵 최종엔트리 확정을 위한 최종 점검의 시점으로 잡고 22명의 선수 가운데 17명에게 그라운드에 나설 기회를 줬다.

네덜란드전에 뽑혔던 22명 중 감독의 지시로 경기에 나서지 않았던 이동국과 골키퍼 김용대(성남)를 고려할 때 올림픽대표팀에서 합류할 수 있는 인원은 많아야 3~4명 수준이다.

현재 올림픽호에서 아시안컵 최종엔트리에 가장 근접한 선수는 중앙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규-강민수(이상 전남) 콤비다.

풀타임 출전한 김진규는 네덜란드전을 통해 A매치 경력을 31경기로 늘리면서 차세대 중앙 수비수로서 인정을 받았고,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강민수도 '합격점'이란 평가를 받았다.

공격진에서는 K-리그에서 '토종 공격수'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이근호(대구)가 유력한 후보로 꼽혀지고 있다.

힘과 스피드를 갖춘 이근호는 뛰어난 돌파력과 함께 정확한 골 결정력이 자랑거리다. 비록 네덜란드전에선 '산배' 최성국(울산)과 염기환(전북)에 밀려 벤치를 지켰지만 언제라도 감독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독일월드컵 멤버에 이름을 올렸던 백지훈(수원)도 시즌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자기의 색깔을 내뽐고 있는 만큼 김남일(수원), 김정우(나고야), 이호(제니트) 등이 버티고 있는 대표팀의 중원 라인에서 경쟁력을 펼쳐보일 만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페더러



에빙

페더러·에빙 4강 진출

프랑스오픈테니스 남녀 단식

'테이크의 마술사' 쥐스틴 에빙(세계랭킹 1위·벨기에)이 '힘의 화신' 서리나 윌리엄스(8위·미국)를 물리치고 총상금 192억원이 걸린 프랑스오픈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4강에 진출했다.

'황제'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는 무실 세트 연승 기록이 '11'에서 멈췄지만 토미 로브레도(9위·스페인)를 3-1(7-5 1-6 6-1 6-2)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3연패에 도전하는 에빙은 5일 밤(한국 시간) 파리 외곽 퐁랑가르 코트에서 벌어진 대회 8강전에서 올해 호주오픈 우승자 윌리엄스를 2-0(6-4 6-3)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애초 박빙의 승부가 되리던 예상은 보기 좋게 빚나갔다. 똑같이 22개의 실책을 범했으나 에빙은 첫 서브에서 포인트를 따내는 득점률에서 85%로 60%에 그친 윌리엄스를 앞섰고 특히 활발한 네트 접근 작전을 펼쳐 63%의 성공률로 36%에 그친 윌리엄스의 힘을 뺐다.

한편 세르비아 남자군의 거침없는 스트로크는 이날도 계속됐다.

4위인 엘레나 야코비치는 복병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니콜 바이디소바(10위·체코)와 준결승에서 2-0(6-3 7-5)으로 승리, 4강에서 에빙과 물리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친다.

상대 전적에서는 에빙이 5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데 지난해 US오픈에 이어 생애 두 번째 4강 진출을 이룬 야코비치가 에빙에게 순순히 결승행 티켓을 내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수 있다.

지난달 10위에 진입한 세르비아의 2인자 안나 이바노비치(7위)는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자인 스베틀라나 쿠즈네초바(3위·러시아)를 2-1(6-0 3-6 6-1)로 꺾는 파란을 연출하며 안나 차크메타제(9위)를 2-0(6-3 6-4)으로 따돌린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2위·이상 러시아)와 4강에서 만난다.

두 선수 모두 이 대회 4강에 처음 진출했고 상대 전적에서도 1승1패로 팽팽히 맞서 있다. 한편 남자 단식 8강전에서 페더러는 전날까지 7전 전승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던 로브레도를 손쉽게 제쳤다.

그러나 1월 호주오픈부터 이어오던 무실세트 연승 행진이 '11'에서 멈춰 존 맥렌로(미국)와 이 부문 최고 기록을 함께 나누는 것에 만족했다.